

丁茶山の 牧民心書 이야기(2)

2. '故自古以來 凡智深之士 無不以廉爲訓 以貪爲戒.'

그러므로 자고 이래로 무릇 지혜가 깊은 선비치고 청렴을 교훈으로 삼고 탐욕을 경계로 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율기잡(律己箴)>에 이르기를, '선비의 청렴은 여자의 순결과 같아서, 진정한 덕력의 오점도 평생의 흠이 되나니, 아무도 보는 이 없다 하지 말라. 하늘이 알고 신(神)이 알고 내가 알고 내가 알지 않느냐. 너 자신을 아끼지 않고 마음의 신명(神明)을 여저 속일 수 있는가. 황금 5,6대(駄)나 후추 8백 곡(斛)도 살아서 영화로움이 되지 못하고 천 년 후에 옥을 남길 뿐이다. 저 아름다운 공자는 한 마리 학이요 하나의 거문고이니, 바라보매 그 늠름(巖然)한 모습이 고금에 청풍이라.' 하였다.

명(明)나라 말기의 소설가 풍몽룡(馮夢龍)은, '천하의 끝없는 불상사는 모두가 수중(手中)의 돈을 버리지 않으려는 데서 생기고, 천하의 끝없는 좋은 일은 모두가 손에 넣은 돈을 버리는 데서 온다.' 고 했다.

정선(鄭璡)이 이르기를, '일기를 탐하는 자는 만족함이 없으니, 모두가 사치를 좋아하는 일념(一念)에서 비롯된다. 검소하고 담담하여 만족을 알면, 세상의 재물을 얻어 무엇에 쓰겠는가. 청풍명월(淸風明月)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대나무 울타리와 피집에도 돈 쓸 일이 없으며, 책을 읽고 도(道)를 논함에도 돈 드는 것이 아니며, 몸을 청결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데에도 돈이 필요치 않으며, 인간을 구제하고 만물을 이롭게 하는 데에도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처럼 늘 자신을 성찰하면 세속의 맛에서 초탈하게 될 것인즉, 탐하는 마음이 또 어디에서 생길 것인가.' 라고 했다.

3. '貨賂之行 誰不祕密 中夜所行 朝已昌矣.'

뇌물을 주고 받음에 누군들 비밀히 하지 않겠는가. 한밤중의 소행이 아침이면 이미 소문이 퍼진다'

이숙(吏屬)은 품사 경박하여 수령 양으로 와서는, '이 일은 비밀이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퍼뜨리면 제게 해로운 텐데 누가 퍼뜨리려 하겠습니까?' 하고 말을 하므로, 수령은 그 말을

깊이 믿고 뇌물을 흔쾌히 받지만, 문 밖에만 나서면 거리낌 없이 말을 퍼뜨리며 자랑하여 자기의 경쟁자를 물리치려 하니, 소문이 삽시간에 사방으로 퍼져 나가나 수령은 혼자 깊숙이 틀어박혀 있어 아무것도 들을 수 없으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양진(楊震)은 사지(四知: 하늘이 알고 신이 알고 내가 알고 내가 안다.)를 말하였으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이다.

양진(楊震)이 형주(荊州)의 자사(刺史)가 되었을 때에 무재(茂才) 왕밀(王密)이 참용(昌用)의 원이 되어 밤에 금열 근을 품고 와 진에게 주면서 '아무운 밤이라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자, 양진이 '하늘이 알고 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 아무도 모른다 하오.' 라고 말하니 왕밀이 부끄럽게 여기고 물러갔다.

손신(孫薪)과 황보(黃葆)는 대학(太學)에서 함께 공부한 사이이다. 후에 황보가 어사가 되어 처주(處州)에 나아가니, 이숙 한 사람이 황보에게 뇌물을 쓰고자 손신을 통해 바치려 했다. 그러나 손신은 그를 만류하며, '삼가 말하지 마라. 네가 내게 그런 말을 하여 그것이 내 귀에 들어가면 그것은 귀에서는 일단 장물(贓物)이 되느니라.' 하고 말했다.

4. '凡珍物 產本邑者 必爲邑弊 不以一枝歸 斯可日廉者也.'

무릇 진기한 물건으로서 본읍에서 나오는 것은 반드시 그 읍에 폐단이 되니, 단 하나라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아야 이를 가치 청렴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강계(江界)의 인삼과 표범 가죽, 경북(鏡北)의 다리(鼈:여자들이 머리 술을 늘리기 위해 북 삼아 집어넣는 다른 머리), 남평(南平)의 부채, 순창(淳昌)의 종이, 담양(潭陽)의 오색찬란한 대나무 상자, 동래(東萊)의 연구(烟具), 경주(慶州)의 수정(水晶), 해주(海州)의 먹[墨], 남포(藍浦)의 버루 같은 것들을 돌아가는 날에 자루 속에 단 하나라도 넣어 가지 않아야 청렴한 선비라 할 수 있다.

진기한 물건을 휴대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그 물건들을 좌우로 펼쳐 놓는 것을 볼 때마다 그 탐욕스럽고 비루한 빛이 안으로부터 뻗쳐 나와 남들로 하여금

그 부끄러움을 대신 느끼게 한다.

5. '凡有所捨 毋聲言 毋德色 毋以語人 毋說前人過失.'

무릇 자기가 배운 것이 있어도 입 밖에 내거나 덕을 베풀었다는 표정을 하지 말 것이며, 남들에게 자랑삼아 퍼뜨리지 말라. 또 전임자(前任者)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매양 보편, 청렴하되 약삭빠른 사람은, 그릇된 전례(前例)에서 생긴 재물을 자기가 쓰지 않고 공리(公理)에 따라 쓰거나, 자기의 봉급을 때어서 백성들에게 베풀기도 한다. 그것은 물론 잘하는 일이지 하지만, 뒤로 들어온 재물을 베풀 때에는 의례히 생색을 내면서 '사대부가 어찌 이런 물건을 받아 쓰겠느냐!' 하며 큰소리를 친다. 아전이 혹 전례를 들어 실책하려 하면 반드시 꾸짖고 곤장을 침으로써 자신의 청렴을 드러내려 한다.

그런 수령들은 또 봉급을 쓰고 남는 것이 있으면 '내가 어찌 남는 봉급을 모아 돌아가 전답을 사겠는가!' 하며 큰소리로 과장하여 유덕한 인품을 과시하려 하며, 백성을 대하거나 손님을 대할 때면 의례히 자긍심(自矜心)을 빼기면서, 자기가 배운 수백 냥의 돈을 엄청난 것으로 여기니, 의식(意識)을 지닌 사람들이 곁에서 그 꼴을 보고 어찌 속으로 웃지 않으리요. 그러나 재물을 희사하고 봉급을 때어 베풀더라도 지나가는 말로 담당 아전에게 몇 마디 더 당부하고, 다시는 그 일을 입에 올리지 말라.

진(晉)나라 시대에 호위(胡威)의 아버지 호질(胡質)이 형주(荊州)의 자사(刺史)가 되었을 때, 위(威)가 서울로부터 와서 문안을 드리고 돌아가려 하자, 비단 한 필을 주어 치장하게 했다. 무제(武帝)가 호위에게, '경의 청렴이 경의 부친과 어떠한가?' 하고 묻자, 위는 '신(臣)의 아버지는 청렴하되 남이 알까 두려워하고, 신은 청렴하되 남들이 모를까 두려워하니, 이는 신이 아버지에 크게 미치지 못함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다음호 계속)

알림 : 지난호 제목에 丁茶山の 분성을 鄭으로 오기하여 高通善인 茶山선생과 丁씨 문중에 크나큰 결례를 범하였습니다. 너그럽게 양해를 구하옵니다.

(다음호에 계속)

졌한 나라로서의 구성요건을 완비한 세계 최초의 국가이다. 바티칸은 가로가 600m, 세로가 700m 정도로 면적이 약 04㎢정도라고 하였다.

세계 각국이 신부 1,600명~2,000명 정도가 베풀로 쌓은 높은 성벽 안에 살고 있으며 군인은 스위스 용병들이라고 하였다. 전 세계에 영향력이 미치며 빠른 정보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발견되는 교황령의 최종 정착지로서 1929년 2월에 교황령에 따라 독립국가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15) 보물창고인 바티칸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에 들어가려고 09 : 10-10 : 20까지 줄로 서서 조금씩 걸어오며 1시간동안을 기다렸다가 겨우 들어 갈 수 있었다.

박물관의 정문은 바티칸로에 접해 있었는데 정문 위에는 현대에 와서 만들어졌다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대리석상이 조각되어 있었다.

정문을 통과하니 1932년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나선형 계단이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서 노천에 계시 해둔 시스틴 소성당 천장화 전경, 천지창조 중에 '이브의 창조'에서 '술 취한 노파'까지와 '빛과 어둠의 분리'에서 '이브의 창조'까지의 설명을 들었다.

앞쪽에는 고대 로마의 부와 영광을 상징하는 커다란 술방울 모형이 있었다. 뜰의 중앙에는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는 깨어진 지구의 빙빙 돌릴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었다. 이들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전시실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에는 여러 가지 조각품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들로 다듬은 안쪽이 거칠거칠한 커다란 목조, 사실적으로 표현한 라

임원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 ☐ 총재단회비
 - ▲ 권총사(부총재) 100만원
 - ▲ 권영렬(부총재) 100만원
 - ▲ 권재주(부총재) 일부50만원
 - ▲ 권혁기(부총재) 100만원
 - ▲ 권오춘(부총재) 100만원
 - ▲ 권오성(평택) 10만원
 - ▲ (봉화우체국) 10만원
 - ▲ (농협 만민) 10만원
 - ▲ 권범택(평택) 10만원
 - ▲ (하나 월평) 10만원
 - ▲ 권오서(의성) 10만원
 - ▲ 권순태(울릉사) 10만원
 - ▲ 권명오(청송) 10만원
 - ▲ 권흥기(청송) 10만원
 - ▲ 권화성(창녕) 10만원
 - ▲ (농협 안동) 10만원
 - ▲ 권순공(대전) 10만원
 - ▲ (농협 상주) 10만원
 - ▲ 권광준(고양) 10만원
 - ▲ (산림조합 영주) 10만원
 - ▲ 권오봉(울산) 10만원
 - ▲ 권혁창(대구) 10만원
 - ▲ (농협 흥방) 10만원
 - ▲ 권준표(순천) 10만원
 - ▲ 권혁필(영등포) 10만원
 - ▲ 권영돈(광진) 10만원
 - ▲ 권희홍(대전) 10만원
 - ▲ 권석호(합천) 10만원
 - ▲ 권오익(안동) 10만원
 - ☐ 중무위원회비
 - ▲ 권영환(음성) 20만원
 - ▲ 권영위(금천) 20만원
 - ▲ 권의철(양천) 20만원
 - ▲ 권우식(인천) 20만원
 - ▲ 권순택(울릉사) 20만원
 - ▲ 권기웅(문경) 10만원
 - ▲ 권시중(안동) 20만원
 - ▲ 권상흥(부산) 10만원
 - ▲ 권오철(영덕) 20만원
 - ▲ 권기홍(문경) 20만원
 - ▲ 권성일(대구) 20만원
 - ▲ 권정환(상주) 20만원
 - ▲ 권영익(안동) 20만원
 - ▲ 권동원(대전) 10만원
 - ▲ 권영태(구미) 10만원
 - ▲ 권정택(상주) 10만원
 - ▲ 권영면(대전) 10만원
 - ▲ 권지섭(금천) 10만원
 - ▲ 권오윤(음성) 10만원
 - ▲ 권오순(노원) 10만원
 - ▲ 권희중(판교) 10만원
 - ▲ 권오중(안동) 10만원
 - ▲ 권월순(광진) 10만원
 - ▲ 권창(시흥) 10만원
 - ▲ 권영평(전주) 10만원
 - ▲ 권태철(수원) 10만원
 - ▲ 권오교(대구) 10만원
 - ▲ 권영봉(안동) 10만원
 - ▲ 권오록(강릉) 10만원
 - ▲ 권오열(강릉) 10만원
 - ▲ 권오윤(강릉) 10만원
 - ▲ (농협 합천) 10만원
 - ▲ 권오수(안동) 10만원
 - ▲ (농협 함양축협) 10만원
 - ▲ (새마을 비석) 10만원
 - ▲ (우체국 대전대덕) 10만원
 - ▲ (국민 덕정) 10만원
 - ☐ 권석구(합천) 10만원
 - ▲ 권태우(화성) 10만원
 - ▲ 권성호(화성) 10만원
 - ▲ (농협 여의도) 10만원
 - ▲ 권영빈(밀양) 10만원
 - ▲ 권영구(화성) 10만원
 - ▲ (신한 법조타운) 10만원
 - ▲ 권태정(안동) 10만원
 - ▲ 권순악(고양) 10만원
 - ▲ 권 찬(서천) 10만원
 - ▲ 권영건(창원) 10만원
 - ▲ 권동환(문경) 10만원
 - ▲ 권영도(영천) 10만원
 - ▲ 권혁원(수원) 10만원
 - ▲ 권기병(안동) 10만원
- 소 계 450만원
- 소 계 240만원
- 소 계 640만원
- 합 계 1,830만원
- ※ 지로용지에 성명누락으로 어느 분인지 알 수 없으니 위 공란의 대의 원(이름없는)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중연 02-2695-2483/4]



도박을 잘하는 환운의 승리

■ 권 중 달

(중대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사마염이 위(魏)왕조를 세웠는데,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사마충(司馬衷)이 황제에 올랐으나 그는 바보로 알려졌다. 그는 풍과 보리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라고 일러져 있다. 우리가 요즘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속박(蔽)이라고 하는 데, 이 말은 사마충에게서 나온 말이라고 일러진다. 황제가 이렇다 보니 사마씨들은 각기 군사를 가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싸움질을 하였다. 이 싸움에 가담한 왕이 여덟 명이어서 8왕의 난이라고 부른다.

나라가 이 꼴이니 전국을 통치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전에 유비가 자리 잡았던 촉(蜀) 땅에 이득(李特)이 독립된 정권을 세웠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한(漢)이라고 하였는데, 촉지역의 도읍인 성도(成都)에 있다고 하여 이를 성한(成漢)이라고 불렀다. 성한은 작은 나라지만 사방이 산으로 둘러 싸였고, 또 성도지역은 농사 짓기에도 좋아서 그런대로 잘 살았다.

중원지역에서는 8왕의 난 끝에 진(晉)나라의 회제 사마치의 민제 사마염이 차례로 흉노가 세운 한(漢, 전조)으로 잡혀갔다. 그래서 진(晉)은 도읍 낙양으로 버리고 양자강 유역의 건강(建康, 남경)에 겨우 진(晉)을 재건하는 커다란 격변기간을 보냈다. 그래도 촉지역에 있는 성한은 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지냈다.

이러한 편안함은 이세(李勢)에 이르러 그는 교만해졌다. 나라의 일에 소홀하고, 아첨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였으며 항벌을 가혹하게 하면서 정치를 하였다. 자연

오른 대리석상, 기원전 6세기 때의 작품인 아폴로 태양의 신, 등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많은 인과 속에 파묻혀 곁으며 그리스 십자기형의 전시실, 원형의 전시실, 뮤오즈 여신들의 전시실을 둘러보았다.

여신들의 전시실에 있는 가슴에 여러 개의 젖이 달린 아르테미스 여신상은 모든 여자를 지켜주는 여신이라고 하였다. 바닥에 천연색 그림으로 메디치 가문의 교황문장이 새겨져 있었는데 LEO : XIII는 13을 말하고 XXXIII는 33이며 MDCCLXXXIII는 1883년이라고 하였다. M=1000, D=500, C=100, L=50, X=10으로 계산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히 사람들의 마음은 성한에서 떠났다. 이러한 때에 동진의 안시장군 환운(桓溫)이 진(晉)의 영토를 때어내어 독립한 성한을 치러 나갔다. 동진으로서는 촉에 있는 성한을 치는 일은 숙원사업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촉지역은 산세가 험하고 방어하기에 좋은 지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실행 못하였던 것이다. 이때에 환운이 성한을 치러 간다고 할 때에도 그곳의 험한 지형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하였다.

드디어 환운이 군사를 이끌고 성한으로 들어가는 임구인 민강 남쪽에 있는 팽포에 도착하였다. 이제 곧 성한의 국경을 넘어서 공격해야할 시점이 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로 분분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한 길을 걷고자 했다. 군사를 돌로 나누어 양쪽으로 나누어 진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면 성한의 군사도 분산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원교라는 사람은 이를 반대하였다. 일상적인 경우라면 그 정체가 맞지만 지금의 경우는 다르다는 것이다. 환운이 이끄는 동진의 군대는 이미 도읍을 떠나서 아주 먼 길을 달려왔다. 따라서 이 군대에겐 보급할 보급로는 길어 언제 중간이 끊길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데 태평하게 시간을 두면서 작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밥 짓는 솥을 다 깨버리고, 병사들에게 3일치의 양식만을 나누어 주고 그 양식을 다 먹을 때까지 승리하여 성도에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작전으로 결국 환운은 승리하여 이세를 붙잡아서 건강으로 압송하였다.

사람은 언제나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로 고민한다. 크기는 국가의 운명을 놓고 선택하고 작게는 자기 한 사람의 운명을

학곡 권세만웅 別世



학곡 권세만웅(안동·추밀공파 문충공계 3世)이 1월 23일 숙환으로 부산, 남산동 자택에서 향년 88세로 별세했다. 세만웅은 약관 20세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30~40대에 8년간 안동북후면장과 서후면장을 역임했다. 이어 부산소계 조선회사에 중역을 거쳐 부산중전회장 겸 고문, 대중회원 및 부회장, 추밀공파대중회부회장, 양촌선생기념사업회 고문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오문문사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1월 25일 3일장으로 많은 조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안동 선영에 안장되었다.



농고 선택한다. 그런데 선택할 때에 한 자락 깔고 하면 전력투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실패한다. 금년은 선거의 해이다. 선택의 해인 것이다. 온 재산을 걸고 내기하는 마음으로 신중히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가족으로서는 미망인 조석연 여사(79-한양조씨)와 5남매를 두고 있다.

權鎬舜 원임 별세



안동 명문사 권운성 시장의 부친이며 前 대중회부회장 권鎬舜씨가 지난 2월 11일 안동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권운은 능봉양소 도유사, 삼태사포관리위원장, 중문공파중회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문사 진력에 크게 기여했다.

14일 4일장으로 많은 조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안동시 도산면 태지리에 안장했다.

기행문

先進 西部유럽 探訪

□ 권 계 동 (본원상임부총재)

<지난호에 이어> 피렌체는 이탈리아 관광의 메카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에 이어 역사와 문화의 장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11~16세기에 걸친 많은 문화유산들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었다. 세계예술 유산의 많은 부분을 이탈리아가 간직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피렌체는 로마와 함께 엄청난 유산을 보유한 도시라고 하였다.

식품, 가구, 의류품, 자동차 부품 등의 공업이 활발하며 상업이 매우 발달한 신흥공업 도시이자 교통의 요충지이다. 피렌체의 중심지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많은 예술작품과 건축물들이 남아 있어 하나의 박물관과 같다고 하였다.

12) 꽃의 성모마리아 성당

이탈리아 성당(두오모) 중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서 여러 가지 색의 대리석으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2,400개가 넘는 첨탑으로 구성되어 있어 꽃의 두오모라고 불리고 있다고 한다.

조프가 설계하여 1206-1303까지 대리석으로 지었으며 붉은 색의 돔 지붕은 조명과 공명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였다 높이가 82m이 종탑도 있었다.

13) 성심자 교회 기능에 따라 교회와 성당을 구분하는데 신부가 있어 미사를 드리는 곳을 성당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을 교회라고 한다고 했다.

이 성심자 교회는 1294년에 세웠으며 정면 좌측에 신곡(新曲)을 썼다는 문학가 단테의 대리석 입상이 있었다. 문학가 단테는 천국(天國), 연옥(煉獄), 지옥(地獄)에 관한 글을 썼다고 한다.

14) 카톨릭의 총 본산인 바티칸 시국 3월 8일(토) 호텔에서 아침밥을 먹고 로마관광을 떠나는 길가에는 우산을 펼친 듯한 소나무들이 많이 보였다. 호텔을 나와서 두 대의 미니버스에 나누어 타고 바티칸 시국으로 가면서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다.

바티칸시국은 카톨릭의 총 본산이며 버



顧問 權憲成 (권현성) 호 文鶴 丙寅 26年生 32世 僕射公派 011-548-1516 054-852-3766 안동종친회

고문, 북야공파 종회 고문 경북 안동시 태화동 태성@101동 703호